

自律的 意味體에 나타나는 Valenz의 問題點

李 炳 燦

(獨文科 教授)

目 次

I. Valenz의 概念	IV. 名詞의 Valenz
II. 分詞의 Valenz	V. 副詞의 Valenz
III. 形容詞의 Valenz	VI. 結 語

I. Valenz의 概念

Valenz概念의 基點은 이것이 概念的 普遍的 特性을 가지느냐 또는 이것이 統辭論的 個別 言語的 性格을 가지느냐에 있다. 말하자면 Valenz는

- 1) 概念 論理的이나?
- 2) 意味 內容的이나?
- 3) 統辭 構造의인 것이나?

의 것으로 귀착된다. 1)의 基點은 무엇보다 語意味에 立脚해서 單語¹⁾마다의 未充填位置 (Leerstelle)에서 意味와 直接的인 關係를 推定하고 2)는 單語의 意味論에 입각해서 어느 相對(Partner)가 未充填位置를 充填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3)은 Helbig로 대표되는 現 상으로 動詞를 文의 構造的 중심에 두고 소위 共演辭라는 일정한 文成分의 結合構造를 보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레벨들에서 1)은 상이한 레벨간의 차이를 볼 수 없는 결함이 있고 2)는 Valenz가 전적으로 意味論的 레벨에 옮겨지시 Valenz의 영역에서 統辭關係가 배제되 어 버린다는 약점이 있고 3)에서는 Valenz가 意味論的 關係의 反射로서의 統辭論的 現 상으로 볼 수 있지만 意味와는 直接的인 關係를 추정할 수 없는 흠이 있다. 例를들면 (1a~2a) 에서는 상이한 레벨에서의 一對一 일치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 文들에서는 意味論的으로 3

(1a) Er stiehlt ihr das Geld.

(2a) *Er bestiehlt sie des Geldes.

個의 項이 있어서 Valenz에 必須的인 成分을 찾아야 하는데 (1a)文에서만 셋째項 Geld가

1) 依在文法에서의 單語는 音韻論的으로 그리고 形態論的으로 固定된 最少의 言語單位로 보고 있 다. 이 單語들은 또 一定한 統辭機能을 行使한다. 그러나 Heringer는 辭素(Lexem)와 形態素 (Morphem)를 Plerem이라는 用語로 轉換시켜 使用하고 있다.

統辭論의으로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를 다시 意味構造로 보면 다음과 같다.

(1b) a caus, daß b c nicht mehr hat.

(1c) → a stiehlt b c.

(2b) a caus, daß b x nicht mehr hat.

(2c) → a bestiehlt b²⁾

이와같이 (2b)에서 x는 (1c)와는 달리 그 Valenz를 실현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意味構造가 統辭 Valenz를 보완시켜주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聯關에서 Valenz概念은 종래 固守되던 統辭論의 레벨에서 論理的 意味論의 레벨이 가미되어가고 實辭³⁾ 전반에 이와같은 경향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實辭에서의 Valenz 특성은 다르다. 예를 들면 動詞 danken은 主格, 與格 그리고 前置詞格 für...를 필요로 하고, 形容詞 dankbar는(主語 또는 다른 文成分인) 關係詞, 與格 그리고 前置詞格 für...를 필요로 한다. 한편 名詞 Dank는 屬格, 前置詞格 an...과 前置詞格 für...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상이한 형식은 하나의 單語가 의미에서 출발한 結合可能性을 가지고 다른 單語에 結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單語의 이러한 結合可能性은 Engel/Schumacher가 말한 「다른 言語的 單位를 지배할 수 있는, 즉 이의 등장을 요구하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言語的 單位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정의하는 格支配(Rektion)와 「어휘 하위 부류에 제약된」⁴⁾ Valenz를 구분시킨다. 말하자면 어휘 부류의 모든 어휘가 동일한 格支配를 갖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義務的 對格을 요구하는 動詞 aufbewahren, 隨意的 對格을 요구하는 動詞 essen, 어떠한 경우에도 對格과 함께 共起하지 않는 動詞 helfen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Valenz 概念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aufbewahren은 essen보다 다른 Valenz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또 helfen과는 다른 Valenz를 갖는다.

이와 같은 聯關에서 單語는 그의 의미에 입각해서 다른 單語에 대한 관계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의 포함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서 論理的 Valenz, 意味論的 Valenz, 統辭論的 Valenz간의 차이⁵⁾에서 출발하여 상이한 品詞의 Valenz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問題點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기술한 바와 같은 차이를 전제할 때 R. Steinitz는 動詞의 Valenz에 입각해서 文要素를

2) (1c)는 (1b)의 語彙化를 나타내고 (2c)는 (2b)의 語彙化를 나타낸다.

3) 實辭는 Tesnière가 品詞를 虛辭(mots vides)와 實辭(mots pleins)로 區分한데 따른 基準이며 傳統化法에서의 動詞, 名詞, 形容詞, 副詞가 이에 該當된다. 虛辭는 添加的 意味單語(synsemantische Wörter)라고도 하며 添加的 範疇語 또는 添加的 意味體로 해석되며 自體로는 어떠한 概念을 나타내지 못하고 단지 文法의 手段으로만 使用된다.

4) Engel, U/Schumacher, 1978: S. 16.

5) Vgl. 堀稿 1981: S. 66.

다음과 같은 4종의 성분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한다. 즉⁶⁾

1) Valenz에 꼭 필요한 성분(valenznotwendige Glieder)—義務的 共演辭, 즉 Valenz 支柱 (Valenzträger)에 의해 項(Argument)으로 요구되며 Valenz 支柱와 의미상으로는 모순되지 않고 統辭論的으로는 削除될 수 없는 성분과

2) Valenz에 있을 수 있는 성분(valenzmögliche Glieder)—隨意的 共演辭, 즉, Valenz 支柱에 의해 項으로 요구되며 Valenz 支柱와 의미상으로는 모순되지 않으나 어떤 문맥 조건하에서 삭제될 수 있는 성분과

3) Valenz와 무관한 성분(valenzunabhängige Glieder)—자유첨가어(freie Angabe), 즉, Valenz 支柱에 의해 項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한정소(Modifikator, Definitor)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Valenz 支柱와 의미상으로는 모순되지 않고 統辭論的으로는 임의로 삭제 또는 첨가시킬 수 있는 성분들과

4) Valenz가 불가능한 성분(valenzunmögliche Glieder)—Valenz 支柱에 의해 項으로 요구되지도 않고 또한 받아들여질 수도 없으며 의미상으로는 Valenz 支柱와 모순되고 統辭論的으로 불가능한 성분등등으로.

한편 Engel/Schramm도 이와 같은 動詞의 共演辭(그들의 境遇는 Ergänzung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와 添加語에 대해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느냐 또는 삭제되느냐는 話者의 傳達意圖에 의존되기 때문에 通報的 資質雙인 必須的인 것과 削除的인 것은 文法的 資質雙인 義務的인 것과 隨意的인 것은 區分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그들의 基點에서도 Valenz의 레벨이 不確實하지만 대체적으로 文成分的 分割에서 統辭論的으로 義務的/隨意的 共演辭와 自由 添加語를 도입시키고 있다.

이에 입각해 보면 상이한 特性들이 상이한 레벨에서 여러 상이한 成分에 제공되어지 있음을 알 수 있다.

II. 分詞의 Valenz

分詞의 Valenz는 그 基底가 되는 動詞의 Valenz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記述된다. 여기서는 현재분사(Partizip I), 과거분사(Partizip II), 그리고 과거분사의 다른 종류로 구분되어야 한다.

1. 현재분사(Partizip I)

Helbig는 현재분사의 경우 그 기저가 되는 動詞에서 義務的(obligatorisch)인 모든 共演辭는 義務的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모든 隨意的(fakultativ)인 共演辭는 隨意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저가 되는 動詞의 主語는 현재분사의 名詞 關係詞(substantivisches

6) Vgl. 掘稿 1979: S. 11.

7) DaF 2/1979; S. 74.

Bezugswort)로 되며 다른 共演辭는 분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다.⁸⁾ 그는 그 예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3) Der Student wohnt *in Dresden*. (義務的 共演辭)

→ *der wohnende Student.

→ der *in Dresden* wohnende Student.

(4) Der Schüler wartet (auf seinen Freund) (隨意的 共演辭).

→ der wartende Schüler.

→ der auf seinen Freund wartende Schüler.

그러나 Helbig는 위의 경우 기저가 되는 動詞의 主語가 현재분사의 名詞關係詞로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 현재분사의 文法的 機能 전반을 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5~6)文 처럼 動詞의 Valenz가 바뀌는 경우의 明示가 없다.

(5) Der Film regte *ihn* auf.

→ der ihn sehr aufregende Film.

→ der Film war *für ihn sehr aufregend*.

(6) Deine Gesinnungslosigkeit empörte *mich*.

→ Die mich empörende Gesinnungslosigkeit.

→ Deine Gesinnungslosigkeit war *für mich empörend*.

뿐만 아니라 보통의 형용사처럼 사용될 수 없는 haben과 결합되는 自動詞의 과거분사에 대한 明示는 없다. 물론 이 때 Valenz만을 問題할 때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현재분사/과거분사의 문법적 기능면을 고려할 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7) Die Stadt hat ehemals geblüht.

→ *die ehemals geblühte Stadt.

→ die ehemals blühende Stadt.

(8) Der Angeklagte hat damals im Zimmer geschlafen.

→ *der damals im Zimmer geschlafene Angeklagte.

→ der damals im Zimmer schlafende Angeklagte.

2. 受動의 意味를 갖는 過去分詞 (Partizip II)

單語部類와 語彙部類는 특징적인 資質에 의한 內包的인 面과 列舉法에 의한 外延的인 面으로 區分될 수 있다. 이때 前者는 意味論的 또는 形態論的인 性質을 가질 수 있다. 動詞에 대해 예를 들면 Duden-Gr.⁹⁾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話者는 動詞를 가지고 무엇이 生起하거나 무엇이 있는지를 말한다. 즉 狀態(Zustand), 事象(Vorgang), 行動(Tätigkeit), 動作(Handlung)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動作이라는 單語는 그 자체가 動作을 나타내고

8) DaF 3/1976; S. 132.

9) Duden 1973; S. 64.

Vorgang이라는 單語는 그 자체가 事象을 나타낸다. 똑같이 受動의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는 事象受動(경우에 따라서 狀態受動)을 거쳐 유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가 되는 動詞로 表示되지 않고 形容詞的인 性格을 가지며 그 Valenz는 다음과 같이 감소된다. 즉 그 기저가 되는 動詞의 主語(→義務的 共演辭)는 隨意的 共演辭로 된다.

(9) Der Schüler schreibt einen Brief.

(→Ein Brief wird(von dem Schüler) geschrieben)

→ *der geschriebene Schüler.

→ ein (von dem Schüler) geschriebener Brief.

한편 모든 義務的 共演辭는 義務的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다른 모든 隨意的 共演辭는 隨意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義務的 共演辭중에서 能動文의 對格 目的語로 나타나는 것이 과거분사의 名詞關係語로 되며 다른 모든 共演辭는 그 기저가 되는 動詞의 主語를 包含해서 과거분사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분사와는 달리 그 기저가 되는 動詞의 對格 目的語가 隨意的 共演辭라 하더라도 과거분사에서는 義務的 共演辭로 바뀐다(與格은 例外).

(10) Der Besitzer verkauft das Haus.(義務的 共演辭)

(→Das Haus wird (von dem Besitzer) verkauft.)

→ das (von dem Besitzer) verkaufte Haus.

(11) Der Bauer pflügt den Acker.(隨意的 共演辭)

(→Der Acker wird (von dem Bauer) gepflügt.)

→ der (von dem Bauer) gepflügte Acker.

(12) Der Faulenzer stiehlt dem Kind das Geld.(2개의 義務的 共演辭)

→ *das (von dem Faulenzer) gestohlene Geld.

→ das dem Kind (von dem Faulenzer) gestohlene Geld.

(13) Der Professor beantwortet (dem Studenten) die Frage.(1個의 義務的 共演辭와 1個의 隨意的 共演辭)

(→die Frage wird/ist beantwortet.)

→ die (von dem Professor) beantwortete Frage.

→ die (dem Studenten) (von dem Professor) beantwortete Frage.

3. 受動의 의미를 갖지 않는 과거분사

亦是 單語部類의 特征적인 資質에 依한 內包的인 面으로 볼 때 이 경우에는 受動에서 유도되지 않고 狀態再歸文(Zustandsreflexiv)이나 能動完了文(Perfekt Aktiv)에서 유도된다. 이 때는 亦是 動詞의 Valenz가 감소되지 않으며 기저가 되는 文의 主語는 義務的으로 分詞의 名詞 關係詞로 되고 다른 共演辭는 分詞 앞에 위치한다. 다만 再歸代名詞 sich는 分詞에서 削除된다.¹⁰⁾

10) 新獨文法事典 1980: S. 154.

(14) Der Mieter hat sich (in dieses Haus) verliebt.

→ der (in dieses Haus) verliebte Mieter.

(15) Der Arzt ist zum Unfallort geeilt.

→ der zum Unfallort geeilte Arzt.

動詞에 의해 결정되는 Valenz 特性에 입각해서 分詞는 Valenz 特性에 있어서 形容詞와 區分된다(Vgl. ibid.).

(16) die (vom Lehrer) *ausgesprochene* Anerkennung¹¹⁾ (=과거분사)

Sie waren *ausgesprochene* Gegner (=형용사)

(17) die (vom Kutscher) abgespannten Pferde (=과거분사)

die(von Training) abgespannten Sportler (=형용사).

대개 轉用의 意味가 놓이는 同音異義의 形容詞에서는 分詞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擴大는 불가능하다. 즉

aufgeknöpft—a) aufknöpfen의 과거분사

b) mitteilksam의 의미인 형용사

aufgeräumt—a) aufräumen의 과거분사

b) in heiterer Stimmung의 의미인 형용사

aufgeweckt—a) aufwecken의 과거분사

b) geistig rege의 의미인 형용사

aufgeschlossen—a) aufschließen의 과거분사

b) mitteilksam의 의미인 형용사

III. 形容詞의 Valenz

形容詞의 Valenz는 一價 내지 三價의 共演辭를 갖는 量的 形容詞와 상이한 共演辭를 갖는 質的 形容詞를 구분한다. 이것은 또 義務的/隨意的 共演辭라는 統辭論的 樣相에 있어서도 ±Hum, ±Anim 등과 같은 意味資質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기 때문에 形容詞도 動詞처럼 意味論的으로 命題項(Proposition)의 述語로 나타낼 수 있다.

(18) Der Mann ist ledig.

(19) Der Mensch ist seiner Sorgen ledig.

(18)에서 ledig의 Valenz는 첫째 ledig₁→Sn (=Substantiv im Nominativ)으로도 記述되고 둘째 ledig₂→Sn, Sg (=Substantiv im Genitiv)로도 記述된다. 그러나 ledig₁₊₍₁₎₌₂로서의 記述은 부적당하다. 왜냐하면 ledig의 두 個의 語彙意味論的 變異形(lexisch-semantische

11) Sommerfeldt/Schreiber 1977: S. 14.

Variante)이 問題가 되기 때문이다. 즉 ledig는 (18)에서는 unverheiratet (19)에서는 frei von etwas od. befreit von etwas의 뜻을 갖는다. 그러나 이 語彙意味論的 變異形은 Sn(→Hum)이라는 同一한 意味充塡을 갖는다.

(20) Der Rektor ist *bereit*.

(21) Die Familie ist (zum Ausflug) *bereit*.

(22) Der Verbrecher ist zu allem *bereit*.

위 (20~22)에서 Helbig는¹²⁾ bereit의 意味가 外延的으로 變換이 있고 (22)에 보충해서 포함된 要素 zu allem은 隨意的인 共演辭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ereit₁₊₍₁₎₌₂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나 Sommerfeldt/Schreiber는 (21)만이 fertig od. vorbereitet의 意味로서의 bereit₁₊₍₁₎₌₂로 보고 (22)는 entschlossen zu의 意味로 義務的인 二價形容詞로 본다. 따라서 (20)이나 (21)이 1+(1)=2이고 (22)는 二價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23~24)에서도

(23) Die Beziehung ist *gespannt*.

(24) Das Kind ist(auf den Geburtstag) *gespannt*.

so beschaffen, daß jederzeit Feindschaft ausbrechen kann의 意味인 一價와 neugierig auf etwas의 1+(1)=2의 二價가 있는데 Helbig가 이를 交替 Valenz로 본다는 것은 意味上的 矛盾을 가져온다.

그 반면에 (25~26)에서는 다시 形容詞의 二個의 意味論的 變異가 생겨난다.

(25) Der Junge ist *müde*.

(26) Er ist des Wartens *müde*.

이 중 (25)는 schlafbedürftig, kraftlos 또는 ermattet의 意味의 義務的 一價이며 (26)은 überdrüssig의 뜻인 義務的 二價이므로 (18~19) 같이 müde₁→Sn, müde₂→Sn, Sg로 된다.

(27) *Sein Bruder ist *ähnlich*.

(28) Sein Bruder ist ihm (in bezug auf sein Temperament) *ähnlich*.

(28)文은 成立되고 (27)文은 成立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形容詞 ähnlich는 義務的 二價와 隨意的 三價이기 때문이다.

(29) Der Sohn ist *dankbar*.

(30) Der Sohn ist seinem Vater *dankbar*.

(31) Der Sohn ist für das Geschenk *dankbar*.

(32) Der Sohn ist seinem Vater für das Geschenk *dankbar*.

12) DaF 3/1976; S. 133.

그러나 위의 (29~32)까지의 形容詞 dankbar은 dankbar₁₊₍₂₎₌₃으로 記述되어야 할 것이다.

이 dankbar와는 달리 (33~34)에서 또 한편으로는 (35~38)에서는 서로 상이한 語彙意

(33) Der Mann ist *schuldig*.

(34) Der Mann ist des Diebstahls *schuldig*.

(35) Er ist ihm Dank *schuldig*.

(36) *Er ist ihm *schuldig*.

(37) *Er ist Dank *schuldig*.

(38) Er ist ihm *schuldig*, daß er sich für die Hilfe bedankt.

味論的 變異形이 問題된다.¹³⁾ 그러므로 (33~34)의 경우 形容詞는 *schuldig*₁₊₍₁₎₌₂로 記述되어야 하고 (35~38)의 경우 그것은 *schuldig*₃으로 記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33)과 같은 文이 文法的으로 完全히 가능한 文으로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를 종합해 보면 形容詞에서도 動詞처럼 義務的 Valenz와 隨意的 Valenz가 言及될 수 있음이 명백해지고 또 一價, 二價, 三價 形容詞도 있고, 交替共演辭도 있고 그리고 形容詞의 統辭論的 Valenz가 動詞의 Valenz처럼 同一한 方法으로 同一한 三個의 段階에서 叙述될 수 있음도¹⁴⁾ 명백해진다.

統辭論的 Valenz에 관한 지금까지의 확실한 假定에 입각해서 動詞처럼 形容詞를 共演辭의 數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1) 義務的 一價形容詞(adj 1)

grün(Farbe), flüssig, gläubig, müßig...

2) 義務的 一價와 隨意的 一價인 二價 形容詞(adj 1+(1)=2)

bercit, gespannt, bange...

3) 義務的 一價와 隨意的 二價인 三價 形容詞(adj 1+(2)=3)

dankbar, einverstanden...

4) 義務的 二價 形容詞(adj 2)

müde(=überdrüssig), ähnlich, eingedenk...

5) 義務的 二價와 隨意的 一價인 三價 形容詞(adj 2+(1)=3)

behilflich...

6) 義務的 三價 形容詞(adj 3)

schuldig...

이와 같은 統辭論的 Valenz인 Sn, Sa, Sg, Sd, pS(=präpositionales Substantiv) 以外에도

13) (33~34)에서의 *schuldig*는 verantwortlich의 뜻이고(35~38)에서의 그것은 zu geben verpflichtet의 뜻이다.

14) Vgl. 堀橋 1979: S. 158.

共演辭들의 統辭形式的인 特徵들은 NS(=Nebensatz), Inf(=Infinitiv), Adj(=Adjektiv)等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形容詞 Valenz에 關係 명백히 해결된 問題도 많지만 아직 完全히 解明되지 않는 問題들도 몇가지 있다. 이것을 問題別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動詞가 文中 第一次의인 Valenz支柱인가 그렇지 않으면 述語形容詞를 包含한 全述部가 文의 第一次의 Valenz支柱인가의 問題
- 2) 述語形容詞의 共演辭들을 目的語로 보느냐 아니면 附加語로 보느냐의 問題
- 3) 形容詞의 論理的/意味論的/統辭論的 Valenz間의 問題
- 4) 結合價支柱와 結合價相對問의 依存關係가 動詞의 Valenz와 形容詞의 Valenz에서는 一致하지 않는 問題.

이런 네가지 項目에서 무엇이 問題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1)의 경우는 Valenz의 階層(Hierarchy)에 關係한 問題이기 때문에 (30)文을 Abb. 1로 하느냐 또는 Abb. 2~ 하느냐의 問題로 歸結된다.

Abb. 1



Abb.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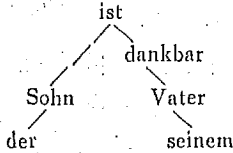


Abb. 1의 경우 形容詞의 文基本型을 動詞의 文基本型의 下位로 보고 $V_{10}^n Adj_{32}$ 처럼¹⁵⁾ 記述하는 것이고 Abb. 2의 경우 形容詞의 Valenz는 動詞의 Valenz와 同一한 核(Nukleus) 속 에 있으므로 形容詞의 文基本型도 動詞의 文基本型과 同一한 레벨에 놓이도록 記述하는 것이다. Helbig도 지적한 것처럼¹⁶⁾ 이 Abb. 2의 해결을 위한 G. Starke의 記述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形容詞가 附加語化될 때 Kopula의 탈락은 sein 動詞에만 적용되지 Kopula 全體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9) Der Mann ist klug.

→ der kluge Mann.

(40) Der Mann scheint/wird krank.

→ der kranke Mann.

그러기 때문에 Kopula들도 역시 意味論的으로 全然히 뜻이 없는 것이 아니며 서로 意味上의

15) Vgl. Heringer 1970: S. 196.

16) DaF a.a.O., S. 134.

對立을 이루며 일정한 選擇機能을 지니게 된다. 예를들면 (41~42)의 意味上 對立 같은 것

(41) Er ist/bleibt dort.

(42) *Er wird/scheint dort.

이다.

2)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근거로 할 때 이러한 共演辭들은 目的語로 해석되어야 한다.¹⁷⁾

a) 動詞와 述語形容詞에서 一致되는 成分들은 서로 같게 取扱될 수 있다는 事實¹⁸⁾ 때문에,

(43) Er ähnelt *seinem* Vater.

→ Er ist *seinem* Vater ähnlich.

b) 形容詞의 共演辭들은 文中서 任意로 交換될 수 있다. 즉 形容詞에서 分離될 수 있고 第一位置에 놓일 수 있다는 事實 때문에,

c) 形容詞의 共演辭들은 附加語들 처럼 潛在的 敘述文이 아니라 動詞의 目的語처럼 論理的 關係判斷의 要素들과 一致된다는 事實 때문에.

(43 a) ←(er)(ähnlich sein)(sein Vater)←Ra,b

3)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問題點이 提起될 수 있다.

a) 形容詞의 義務的 未充填位置는 形容詞가 보통 個個人이나 對象들의 屬性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論理的으로나 意味論的으로 當然한 것이다. 이러한 屬性들을 지니는 것이 統辭論的으로 關係語(Bezugswort)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때문에 意味論的 部類와 統辭論的 部類가 完全히 一直線上으로 配列될 수는 없다.

b) 形容詞의 論理/意味論的 Valenz와 統辭論的 Valenz間的 差異는 意味論上으로 몇몇 個의 項이 前提되어질 때에도 分明해진다. 그러나 이 項들은 統辭論的으로는 다르게 實現될 수 있다.

(44) gleichaltrig sein (die Tochter, ihr Freund)

→ Die Tochter ist gleichaltrig mit ihrem Freund.

→ Beide(Sie) sind gleichaltrig.

(45) sich vereinigen (die Isar, die Donau)

→ Die Isar vereinigt sich mit der Donau.

→ Beide Flüsse vereinigen sich.

c) 形容詞에서의 Valenz變異의 限界 問題는 그 基點이 統辭論的 Valenz나 意味論的

17) Ibid.

18) 意味上의 一致는 文成分의 性格에서 反映된다.

Valenz나에 달려 있다. 形容詞의 語彙意味論的 變異形이 그 基點이 되면 多分히 直觀에 흐르기 쉽다.

d) 零價動詞에서 처럼 零價形容詞의 設定與否가 問題된다. 왜냐하면 (46)文처럼 실제로

(46) *Es ist neblig.*

零價形容詞가 있지만 이때의 es는 屬性을 지니는 名詞로, 즉 (47)文처럼 代置될 수 있다는

(47) *Das Wetter/der heutige Tag/der Abend ist neblig.*

때 問題點이 있다.

e) 形容詞에 必須的으로 附隨되는 共演辭는 主格名詞로 限定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格特히 與格 名詞에 依해 實現되는 境遇가 히다하게 있다. 例를 들면 (48~49)文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48) *Mir ist schwindlig.*

(49) *Dem Studenten ist bange (vor der Prüfung).*

그러기 때문에 「形容詞는 늘 名詞關係語와 一致되는 Valenz 相對를 가지는 데 그 關係語는 形容詞가 附加語로 사용될 때는 形容詞 뒤에 오고 述語的으로 使用될 때는 主格 主語가 된다」¹⁹⁾는 普遍的인 觀念은 制限받아야 할 것이다.

4)의 경우는 動詞의 Valenz를 記述할 때 動詞의 Valenz相對는 動詞에 依存하는 成分이 된다. 이와 똑 같은 關係는 形容詞가 述語的으로 使用될 때에만 해당될 수 있지²⁰⁾ 形容詞가 附加語的으로 使用될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²¹⁾

IV. 名詞의 Valenz

動詞와 形容詞는 同一한 語彙目錄으로 統辭 Valenz를 記述할 수 있으나 名詞의 Valenz는 엄밀히 따져서 動詞나 形容詞가 名詞化된 것 (deverbale und deadjektivische Bildung)만 으로 統辭 Valenz를 記述할 수 있다. 例를 들면 動詞에서는 (50~51)이 形容詞에서는 (52~53)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50) *Der Angeklagte zweifelt an seiner Zuverlässigkeit.*

→ *der Zweifel des Angeklagten an seiner Zuverlässigkeit.*

(51) *Die Eltern hoffen auf seine baldige Besserung.*

19) DaF 3/1973: S. 140.

20) 이런 境遇 主格主語로, 形容詞에 依存하는 成分들도 述語的 形容詞에 依해 支配받는 것이 된다.

21) 이 경우 名詞는 支配成分이고 形容詞는 附加語로서 依存成分이 된다.

Valenz나에 달려 있다. 形容詞의 語彙意味論的 變異形이 그 基點이 되면 多分히 直觀에 흐르기 쉽다.

d) 零價動詞에서 처럼 零價形容詞의 設定與否가 問題된다. 왜냐하면 (46)文처럼 실제로

(46) *Es ist neblig.*

零價形容詞가 있지만 이때의 es는 屬性을 지니는 名詞로, 즉 (47)文처럼 代置될 수 있다는

(47) *Das Wetter/der heutige Tag/der Abend ist neblig.*

때 問題點이 있다.

e) 形容詞에 必學的으로 附隨되는 共演辭는 主格名詞로 限定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格 特別히 與格 名詞에 依해 實現되는 境遇가 히다하게 있다. 例를 들면 (48~49)文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48) *Mir ist schwindlig.*

(49) *Dem Studenten ist bange (vor der Prüfung).*

그러기 때문에 「形容詞는 늘 名詞關係語와 一致되는 Valenz 相對를 가지는 데 그 關係語는 形容詞가 附加語로 사용될 때는 形容詞 뒤에 오고 述語的으로 使用될 때는 主格 主語가 된다」¹⁹⁾는 普遍的인 觀念은 制限받아야 할 것이다.

4)의 경우는 動詞의 Valenz를 記述할 때 動詞의 Valenz相對는 動詞에 依存하는 成分이 된다. 이와 똑 같은 關係는 形容詞가 述語的으로 使用될 때에만 해당될 수 있지²⁰⁾ 形容詞가 附加語的으로 使用될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²¹⁾

IV. 名詞의 Valenz

動詞와 形容詞는 同一한 語彙目錄으로 統辭 Valenz를 記述할 수 있으나 名詞의 Valenz는 엄밀히 따져서 動詞나 形容詞가 名詞化된 것(deverbale und deadjektivische Bildung)만 으로 統辭 Valenz를 記述할 수 있다. 例를 들면 動詞에서는 (50~51)이 形容詞에서는 (52~53)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50) *Der Angeklagte zweifelt an seiner Zuverlässigkeit.*

→ *der Zweifel des Angeklagten an seiner Zuverlässigkeit.*

(51) *Die Eltern hoffen auf seine baldige Besserung.*

19) DaF 3/1973: S. 140.

20) 이런 境遇 主格主語로, 形容詞에 依存하는 成分들도 述語的 形容詞에 依해 支配받는 것이 된다.

21) 이 경우 名詞는 支配成分이고 形容詞는 附加語로서 依存成分이 된다.

은 明白하다. 前者의 境遇는 統辭 Valenz와 並行해서 論理 意味 Valenz가 나와 있다. 그러나 後者の 境遇 論理 意味 Valenz레벨에서는 記述이 可能하나 統辭 Valenz레벨에서의 記述은 거의 不可能하다. 確實히 Konkreta들은 意味 Valenz를 갖고 있으나 統辭 Valenz의 明示性은 없다.

이와 같은 相異한 Valenz레벨에서 몇가지를 要約해보면

첫째 : 名詞의 Valenz는 隨意的으로 나타난다.

둘째 : Abstrakta들은 統辭 레벨이 論理 意味 레벨과 함께 나타난다.

셋째 : Konkreta들은 統辭레벨의 單位들과 意味 레벨의 單位들이 반드시 一致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54~55)의 境遇 分明히 意味論的 Valenz에 依해 des Hauses 또는 des Vaters가 充填要素로 들어가 있으나 (56~58)에 나오는 身體部分 名詞나 親屬名詞는 論理

(56) Er schleudert ihm den Handschuh ins *Gesicht*.

(57) Freunde klopfen meinem Freund auf die *Schulter*.

(58) Der Regen tropf mir auf den *Hut*.

(59) Des Vaters sein *Buch* liegt auf dem Tisch.

意味 Valenz에 依해서 뿐만 아니라 統辭 Valenz에 依해서도 與格을 義務的 Valenz로 取하고 있다. 이것은 勿論 das A des B라는 讓渡不可能 所有(unveräußerlicher Besitz)를 意味하며 統辭 Valenz가 意味解釋에 依해 이미 指定된 Valenz로 化한 것이다.²²⁾ 마찬가지로 (59)는 一種의 類似 親屬名詞(Pseudo-Verwandtschaftsnamen)가 左側轉位(left dislocation)를 한²³⁾ 二價 Konkreta의 보기다.

네째 : 意味 Valenz와 統辭 Valenz의 限界가 不確實하다. 예를 들면 發話되는 瞬間 恒久的인 職業을 表示하는가 아니면 一定한 行動(Tätigkeit)을 나타내는 條件을 充足시켜야 하는 作爲者 名詞(Nomina agentis)는 職業表示에서 隨意的 共演辭가 必要하고 行動表示에는 義務的 共演辭가 必要하다.

(60) Sein Vater ist *Fahrer*.(職業)

(61) Sein Vater ist *der Fahrer* unserer Kinder.(行動=職業이 運轉技士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잘 태워주는 사람이란 뜻)

그러기 때문에 (60)에서 職業表示의 *Fahrer*는 隨意的 共演辭가, (61)에서 行動表示의 作爲者 名詞는 義務的 共演辭가 統辭 意味 Valenz로서 實現되어 있다.

다섯째 : 零價名詞 即 名詞間에서 統合의 可能性이 없는 名詞가 있는가의 問題가 있다. 여기에 對해 Helbig는 Sommerfeldt/Schreiber가 設定한 零價名詞에 對해 同一한 位置에 놓

22) 摺稿 1976: S. 276.

23) Ibid. S. 284.

이는 類似한 形容詞의 例를 들어 이에 反論을 提起하고 있다.²⁴⁾ 그러나 零價動詞의 名詞化와 같은 (62)는 零價名詞로서 可能하나 (60)에서의 Fahrer를 Sommerfeldt/Schreiber가 零價

(62) das *Donnern*, das *Blitzen*.

名詞로 規定하는 것에 對해 (63b)에서의 形容詞가 一價인 것처럼 (63a)도 一價여야 한다는 主張이다. 勿論 그의 主張의 背後에는 述語名詞는 形容詞와 마찬가지로 主格主語도 共演辭

(63a) Der Gast war *Katholik*.

(63b) Der Gast war *katholisch*.

로 取扱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名詞 Valenz의 基準은 어디까지나 論理意味레벨에서 統辭 Valenz가 記述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Vater, Tochter, Freund와 같이 關係를 나타내는 名詞들은 Sommerfeldt/Schreiber와는 달리 二價로 表示해야 할 것이다.

(64) Berlin ist die Hauptstadt des deutschen Reiches.

←X (ist eine Hauptstadt von) Y.

→ *Berlin ist die Hauptstadt.

R(x, y)와 같은 이런 統辭 Valenz에 따라 一定한 名詞部類들의 類型的 用法이²⁵⁾ 一定한 意味論的 名詞部類들과 一致된다는 것은 動詞와 形容詞처럼 一直線上에 놓인 다거나 直接的 聯關性을 갖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Helbig가 分類한대로²⁶⁾ Abstrakta들을 보면

1. 行動名詞(Tätigkeitsbezeichnung)

a) 一價

(65) das Spielen des Jungen.

b) 二價

(66) die Fahrt der Delegation zum Kongreß.

c) 三價

(67) die Überreichung der Zeugnisse an die Abiturienten durch den Direktor.

2. 事象名詞(Vorgangsbezeichnung)

a) 一價

(68) der Beginn der Veranstaltung.

24) DaF 3/1976: S. 138f.

25) 掘稿 1981: S. 4f.

26) ibid. S. 139.

b) 零價

(69) das Donnern.

3. 狀態名詞(Zustandsbezeichnung)

a) 一價

(70) die Verzweiflung des Angeklagten.

b) 二價

(71) die Verwundung des X durch Y.

4. 特性名詞(Eigenschaftsbezeichnung)

a) 一價

(72) die Breite des Flusses.

b) 二價

(73) die Aufgeschlossenheit der Studenten gegenüber den Erkenntnissen.

c) 三價

(74) die Dankbarkeit des Lehrlings dem Meister gegenüber für die gute Ausbildung.

Helbig가 Sommerfeld/Schreiber의 分類 그대로를 再引用한 이것은 1~3은 動詞에서 派生된 名詞로 보고 4는 形容詞에서 派生된 것으로 보며 그 共演辭도 基底動詞나 基底形容詞와 大體的으로 一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序頭에서 指摘하였듯이 이와같은 '派生名詞'들은 그 共演辭가 基底詞의 共演辭의 數와 質이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例를 들면 -ung은 大體的으로 1) 사람에 依해 行動이 取해지거나(Bedienung) 2) 사람에 對한 集合의 行爲가 되거나(Regierung) 3) 個體의 行爲가 되거나(Leitung) 4) 어떤 行爲의 起始 또는 過程을 나타내거나(Vermittlung) 또는 5) 供與(ornativ)의 意味를 갖게 하거나 할 때 動詞의 派生名詞로 造語된다.

이와 같은 -ung에서 1)~3)은 普通 基底動詞의 Valenz를 그대로 넘겨받지만 4)~5)는 Valenz도 달라지고 意味도 달라지는 境遇가 많다.

(75) Die Mutter bedient einen Kranken.

→ die Bedienung eines Kranken.

(76) Friedrich der Großen regierte von 1740 bis 1786.

→ die Regierung Friedrichs des Großen.

(77) Der Angeklagte leitete einen Betrieb.

→ die Leitung eines Betriebs durch den Angeklagten.

(78) Der Lehrer vermittelt ihm einen Briefpartner im Ausland.

→ die Vermittlung an einen Briefpartner im Ausland.

특히 基底動詞가 供與的(ornativ)일 때는 統辭 Valenz뿐만 아니라 意味 Valenz도 달라

진다.²⁷⁾

(79) Die *Lieferung* der Lebensmittel durch den Großhandel an die Gaststätten erfolgte regelmäßig.

(80) Er kontrollierte die eingegangene *Lieferung* des Großhandels an seine Gaststätte.

(79)의 Lebensmittel은 對格的 意味로서의 食料品을 供給하는 것이고 (80)의 Großhandel은 主格的 意味로서의 都賣商이 供給하는 物品이다. 따라서 同一한 意味 Valenz를 가진 Lieferung이 어떤 때는 三價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二價로 나타난다. 이것은 結局 (79)에서의 Lieferung이 사람에 依해 行動이 取해지는 行動名詞로 해석되는 때문이고 (80)의 그것은 어떤 起始의 行爲때문에 Lieferung의 意味마저 變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名詞에서도 形容詞나 動詞에서 처럼 語彙意味論的 變異形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名詞도 形容詞나 動詞처럼 統辭 Valenz에서 出發하여 名詞의 統辭 Valenz에 根據를 두고 만들어진 文基本 構造들의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Sommerfeld의 「名詞 Valenz에 依한 독일말의 文型 構想에 對해 (Zur Aufstellung von Satztypen substantivischer Sätze des Deutschen unter Einbeziehung der Valenz)」라는 論文에서도 明示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具體的 言語形式을 度外視하고 意味 論理 테벨에 立脚해서 Valenz를 配列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名詞文(Substantivsatz)을 다음 三種으로 分類시킨다.²⁸⁾

1) Subjekt+K+S_n

(81) Mein Freund ist Lehrer.

2) Subjekt+K+S_g

(82) Der Lehrer ist guter Laune.

3) Subjekt+K+pS

(83) Das Werk ist von Bedeutung.

이 세가지 文基本 構造들은 述語의 結合價에 따라 다시 下位部類化된다. 말하자면 主語와 述語間의 關係가 述語의 Valenz라는 두 現象에 依해 나타나는 文基本 構造와 述語가 主語에 依해 表示된 것의 資質을 提示해 주고 述語의 Valenz에 依해서만 나타나는 文基本 構造가 있다.

1. 主語에 依해 表示된 것과 述語에 依해 表示된 것間의 意味關係를 나타내는 構造
文基本 構造 Sn+Kopula+Sn

a) 一價述語의 文基本 構造

i) 具象名詞 部類

27) Ibid.

28) DaF 3/1976: S. 146ff.

- (84) Das ist ein Haus.
- (85) Dieses Kleid ist ein Geschenk.

여기서는 論理 意味의인 所屬, 所有等이 問題되나 述語에 依해 通報의으로 度外視한다.

ii) 無行爲者 部類

- (86) Dieses Geräusch ist ein Donner.

b) 二價述語의 文基本 構造

i) 行爲者 部類

- (87) *Mein Vater ist Fahrer meines Nachbarn.*

ii) 過程 部類

- (88) *Das Schönste in Herbst ist das Fallen des Laubes.*

c) 三價述語의 文基本 構造

i) 方向이 設定된 行動을 나타내는 述語

- (89) *Das ist die Unterstützung der Sportler durch die Regierung.*

ii) 狀態, 特性을 나타내는 述語

- (90) *Das ist der Aufenthalt des Ministers in der Hauptstadt (des Nachbarlandes).*

d) 四價述語의 文基本 構造

i) 行爲者, 相對等의 名詞가 概念的으로 結合된 述語

- (91) *Das ist der Befehl des Kommandeurs an das Regiment zum Eingraben.*

ii) 名詞가 三價 形容詞에서 派生된 述語

- (92) *Das ist die Ähnlichkeit des Sohnes mit dem Vater in bezug auf die Hartnäckigkeit.*

2. 主語의 內的狀態, 所屬, 質等의 多樣한 意味를 갖는 構造

文基本 構造 Sn+Kopula+Sg.

a) 一價 述語의 文基本 構造

- (93) *Er ist des Teufels.*

b) 二價 述語의 文基本 構造

- (94) *Das Problem ist philosophischer Natur.*

c) 三價 述語의 文基本 構造

여기서는 對稱關係를 나타내는 述語가 나타난다.

- (95) *Er ist gleichen Sinnes mit seinem Freund.*

3. 前置詞를 갖는 名詞를 述語로 갖는 構造이며 이 때 前置詞의 多樣性에 依해 많은 意

味部類가 생긴다.

文基本 構造 Sn + Kopula + pS.

a) 一價 述語의 文基本 構造

i) 精神狀態 表示

(96) Der *Mann* ist nicht bei Trost/am Leben.

ii) 質表示

(97) Der *Schrank* ist aus Holz/Blech.

iii) 所屬 表示

(98) Die *Insel* ist in französischer Hand.

b) 二價 述語의 文基本 構造

(99) Der *Junge* ist im Einverständnis mit seinem Freund.

V. 副詞의 Valenz

Bluhm은 어떤 思想에 對한 思想 部分의 構成을 어떤 文에 對한 文 部分의 構成과 聯關시킨 Frege의 理論을 進展시켜 思想이 完全해지기 위해서는 文 部分가운데서 하나도 割除시켜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 文 部分은 文을 表現하는 사람이 그 思想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表現하기 위한 通信的 必要性的 側面에서 最少文을 規定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말하자면 最少文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統辭 側面보다는 意味 側面을 強調한 것이다. 우리가 副詞의 Valenz를 밝히고자 할 때 最少文 또는 核文에서 이 副詞의 처리문제가 제일 크나큰 難關으로 대두된다.

Tesnière가 그의 統辭理論을 展開시키면서 實辭(mots pleins)로서, 다시 말하면 自律的 意味 單語(autosemantische Wörter)로서 動詞, 名詞, 形容詞, 副詞를 내세웠다. 이 中에서 前 三者는 既述한 대로 각己 그 自體들이 Valenz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添加的 意味單語(synsemantische Wörter)가 아니고 自律的 意味 單語인 이 副詞만은 統辭 側面에서 Valenz를 解明하지 못하고 있다. 元來 意味論의 觀點에서의 Valenz는 하나의 意味資質이고 關係論理的 意味에서 보면 어떤 特定數의 未充填 位置를 가져야 한다는 假定에서 出發한다. 그러나 副詞가 Valenz支柱로 될 때 이에 依해 要求되는 項(Argument)의 設定이 問題가 된다. 例를들어 (100)에서의 heute는 分明히 spielen의 自由添加語로 나타나 있다. 이 規準은

(100) Er spielt heute.

29) 拙稿 1981: S. 63.

勿論 動詞를 文 構成의 核으로 볼 때 一價動詞의 餘分으로 添加되었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spielen이 Valenz支柱이고 Er는 項이다. 그러나 (100)을 (100a)라는 두 개의 核文으로 바꾸었을 境遇 論理 構造面으로는 spielen이 Valenz相對가 되고 heute가 Valenz支柱가 될 것

(100 a) Er spielt.

Das Spielen ist(geschicht) heute.

이다. 이 文들을 通信的 側面에서 더욱 擴大시켜 보면 spielen이 heute의 未充填 位置를 被

(100 b) A: Was macht der Fritz heute?

B: Er spielt heute Fußball.

A: Glaube ich nicht. Gestern hat er noch gehumpelt.

B: Wetten, daß der Fritz heute Fußball spielt!

A: Die Wetten gilt!

占시키고 있으므로 論理的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述語라는 Bluhm의 指摘³⁰⁾에 肯定的인 答을 줄 것이고 文의 削除檢査(Weglaßprobe)의 타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Valenz는 意味 統辭論的 現象이고 文 成分 레벨에 位置해서 意味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副詞에 關한 限 論理 意味 Valenz가 問題이지 統辭 Valenz가 問題되지 않고 있다. 「E와 A의 分割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意味 統辭論的으로 確認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A는 E와 反對로 殘餘文에 對한 一種의 說明文으로 把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1)은 大略 (101a)로 把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把握方法이 確實한지 어떤지는 「意味統辭論(Inhaltssyntax)이 確認해 줄 일이다.」³¹⁾라고 Heringer도 副詞는 意味統辭的 現

(101) Fritz unterdrückt Emil rigoros.

(101 a) die Unterdrückung von Emil durch Fritz ist rigoros.

象이라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副詞의 Valenz에 關해서 試圖된 統辭論的 解明은 어려운 問題가 된다. 왜냐하면 副詞는 論理 意味的으로 (100)과 (100a~b)에서 처럼 二次的인 Valenz支柱가 되고 있지만 統辭論的으로는 Valenz支柱로서의 述語에 對해 아마 Valenz相對로만 看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副詞에서 더욱 分明한 點은 副詞가 Grebe의 意味에서 E₆₋₉이고 Engel의 意味에서 E₅₋₆이고 Heringer의 E₅ 그리고 Helbig/Buscha의 副詞規定詞로서 動詞의 Valenz 相對役을 한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副詞規定詞들은 義務的/附意的인 것과 自由的인 것이 있다. 이 세가지 分類는 意味論的 分類의 副詞規定詞들과 差異가 나며 交換 可能性과 強調에 依한 下位部類 資質의 副詞들과는 差異가 난다. 이들은 그때마다 相應되는 動詞들에 依存되어 있다. 따라서 副詞는 Valenz 支柱로서의 役割

30) Ibid.: S. 64.

31) Heringer 1970: S. 116.

(102) Er wohnt *dort*(義務的)

(102 a) *Er wohnt.

(103) Der Zug fährt dorthin.(隨意的)

(103 a) Der Zug fährt schnell.(自由添加語)

(103 b) Der Zug fährt.

보다는 動詞의 Valenz相對로서의 役割에 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VI: 結 語

動詞의 Valenz概念이 自律的 意味 單語들에 擴大되는데 對한 問題點을 보았다. 分詞와 形容詞에서는 論理 意味 Valenz와 統辭 Valenz가 어느 程度 分明히 把握되지만 名詞 Valenz에서는 論理 意味 Valenz가 問題되는 反面 統辭 Valenz들의 共演辭들은 名詞에서 隨意的 共演辭로 轉換되는 것을 보았다. 副詞 Valenz에서는 論理的으로는 述語로 形成될 수 있으나 統辭論으로는 不可能하다는 點이 指摘되었다. 添加的 意味 單語들에 對한 格支配와 Valenz 問題가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은 前置詞의 境遇에 限定되는 現象이고 廣意의 前置詞은 前置詞과 그 目的語가 結合된 前置詞格이 問題된다. 이것은 Tesnière가 말한 轉換辭(translatif)로서의 統辭機能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Valenz에 關한 모든 問題가 解決된 것은 아니며 새로운 問題點들이 惹起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 分野에 對한 계속적인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 M.Y. Chi u. a., Dong-As Handbuch der Deutschen Grammatik, Dong-A Verlag, 1981.
- U. Engel/H. Schumacher,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TBL Verlag Gunter Narr, 1978.
- P. Grebe, Duden-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Bd. IV, 1973.
- G. Helbig, Zur Valenz verschiedener Wortklassen, in: DaF 3/1976.
- G. Helbig, Zum Status der Valenz und der semantischen Kasus, in: DaF, 2/1979.
- H.-J. Heringer, Theorie der deutschen Syntax, Max Hueber Verlag, 1970.
- K.-E. Sommerfeldt, Zur Aufstellung von Satztypen substantivischer Sätze des Deutschen unter Einbeziehung der Valenz, in: DaF, 3/1976.
- K.-E. Sommerfeldt/H. Schreiber,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Adjektive,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1977.

G. Starke, Satzmodelle mit prädikativem Adjektiv im Deutschen, in: DaF, 3/1973.

B.T. Rhie, Über die inalienable Possession in der deutschen Sprache,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1976.

B.T. Rhie, Einige Probleme der Valenz in der Dependenzgrammatik,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1979.

B.T. Rhie, Untersuchungen zur deutschen Pertinenz, S.N.U. Verlag, 1981.

《Zusammenfassung》

Einige Probleme der Valenz in den Autosemantika

Byong Tschan Rhie

In dieser Abhandlung habe ich einige Probleme des Valenzbegriffs in der auf die Autosemantika erweiterten deutschen Verben untersucht, nicht aber die Frage nach der Valenz und Rektion der Synsemantika.

Im deutschen Partizip und Adjektiv ergeben sich keine Probleme hinsichtlich des Zusammenhangs von logisch-semantischer und syntaktischer Valenz.

Gewiß kann man auch beim deutschen Substantiv von Valenz sprechen, es handelt sich dabei nicht um logisch-semantische Valenz, sondern um syntaktische, weil die Aktanten in substantivischen Ebenen im Allgemeinen fakultativ transferieren können. Das wird besonders deutlich an Konkreta. Wenn die Aktanten sicherlich auch bei den desubstantivischen Abstraktsbildungen gleich denen der Basisverben auftauchen, beschränkt das nur auf logisch-semantischer Ebenen.

Von der semantischen Seite der Valenz her wäre das deutsche Adverb logisch als ein Prädikat zum Prädikat anzusehen, nicht aber als konkrete syntaktische Struktur. Deshalb gilt es nur als Angaben bzw. Valenzpartner, nicht als Valenzträger.